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이 정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동기 외상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순차매개효과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하 승 미

아동기 외상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순차매개효과

이 정 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하 승 미

인 준 서

하승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서 수 연 (인)

심 사 위 원 이 정 윤 (인)

심 사 위 원 차 옥 균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각각 매개하는지, 나아가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미만의 전국 여자 대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아동기 외상 척도, 성적 자기주장 척도, 단절 및 거절도식 척도,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 성적 자기주장,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순차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이 매개함을 밝힘으로써,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와 경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아동기 외상, 성적 자기주장,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Ⅱ. 연구문제 및 가설 ····· 8

Ⅲ. 이론적 배경 ····· 10

1. 성적 자기주장 ····· 10

1) 성적 자기주장의 개념 ····· 10

2. 아동기 외상 ····· 12

1) 외상의 개념과 구분 ····· 12

2) 아동기 외상의 개념 ····· 13

3)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 15

3. 단절 및 거절도식 ····· 17

1) 초기 부적응 도식의 개념 ····· 17

2) 단절 및 거절도식의 개념 ····· 18

3) 아동기 외상과 단절 및 거절도식 간의 관계 ····· 20

4) 단절 및 거절도식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 21

4. 정서표현 양가성 ····· 22

1) 정서표현 양가성의 개념 ····· 22

2) 아동기 외상과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관계 ····· 24

3)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 25

5.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 27

Ⅳ. 연구방법 ····· 29

1. 연구대상 및 절차 ····· 29

2. 측정 도구 ····· 30

1) 아동기 외상 척도 ····· 30

2) 성적 자기주장 척도 ····· 31

3) 단절 및 거절도식 척도 ····· 32

4)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 33

3. 자료 분석 ····· 35

Ⅴ. 연구결과 ····· 36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36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6

2) 연구 대상자의 아동기 외상 경험 유형 ····· 37

3) 연구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38

2. 매개효과 검증 ····· 40

3. 간접효과 검증 ····· 42

Ⅵ. 논의 ····· 44

참고논문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아동기 외상의 문항구성 ····· 31
[표 2] 성적 자기주장의 문항구성 ····· 32
[표 3] 단절 및 거절도식의 문항구성 ····· 33
[표 4] 정서표현 양가성의 문항구성 ····· 34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6
[표 6] 연구 대상자의 외상 유형 빈도분석 결과 ····· 37
[표 7] 연구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 39
[표 8] 매개효과 검증 결과 ····· 41
[표 9] 간접효과 Bootstrapping 분석 결과 ····· 43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 8
[그림 2] 최종 모형 ····· 42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Erikson(1994)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성인 초기 발달단계에 해당되며, 가족, 연인, 친구 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의 이성관계는 친밀감 형성이라는 초기 성인기 발달과업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최효선, 양수진, 2018), 이성 관계는 어떠한 또래 관계보다 더 큰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며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타인과 융화할 수 있는 경험이 될 뿐 아니라(Kite, Whitley & Wagner, 2022), 이성 교제를 통해 성적 접촉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최명현, 2005).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성 가치관의 변화, 결혼 연령의 지연과 더불어 성에 대한 개방성이 증진됨에 따라, 오늘날 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개방적이고 허용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성적 표현과 행동이 보다 자유로워졌다(안지인, 고영건, 2014; 정진아, 전혜정, 천성문, 2018). 또한, 서구문화의 유입과 언제 어디서든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공간에서 시각적 미디어를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김혜경, 2017).

그러나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나 충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편이며, 성적 자율성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수락하기 쉽다(정진아, 전혜정, 천성문, 2018). 따라서 성 욕

구와 성 충동의 조절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성적 분위기에 휩쓸려 주체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기초하지 않은 무분별한 성행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정진아, 전혜정, 천성문, 2018).

대학생의 성적 행동과 관련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로 인한 임신 및 성병의 문제가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손승연, 임성문, 2011; French & Holland, 2013; Goodman et al., 2019; Pugh & Becker, 2018; Whiting, Pharr, Buttner & Lough, 2019), 여자 대학생의 경우 성적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과 성병의 문제에서 나아가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와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김정애, 조의영, 2019; Du Toit, Jordaan, Niehaus, Koen & Leppanen, 2018; Sasaki, Ikeda & Nishi,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 여자 대학생으로 성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치료적 개입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한 성적 행동을 유지함으로써 임신 및 성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적 자기주장 변인에 주목하였다(최명현, 2005; Loshek & Terrell, 2015; Morokoff et al., 2009).

성적 자기주장(sexual assertiveness)이란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건강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Orchowski & Gidycz, 2018)으로, ‘주장’, ‘거절’, ‘예방’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된다(Patricia et al., 1997). 먼저, 주장 요인은 파트너와의 성적 접촉 상황에서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적 요구를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절 요인은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임신 및 성병 예방요인은 파트너와의 성교 시 콘돔과 같은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최명현,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모형을 구축함에 있어 애착 이론의 관점에 기초하고자 하였다. 유외숙과 박경(200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성 교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응낙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성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돕고 개입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응낙하는 성 행동을 개념화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개념화 과정에 개인의 애착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Leclerc와 동료들(2015) 또한 성인의 성적 과정과 성적 적응을 이해함에 있어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인 아동기 외상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기 외상이란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부모나 양육자가 신체적 또는 심리적 상해를 가하는 우발적이지 않은 행위(Burgess & Conger, 1978)로서, 이러한 아동기 외상은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애착 관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김혜진, 김현수, 2020).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Bowlby(1982)에 따르면 아동은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기표상과 타인표상과 같은 정신적 표상이 이후 자기 및 타인, 그리고 세상을 지각하는 틀인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기능하며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대처방식을 학습하게 되는데(Gentzler, Contreras-Grau, Kerns & Weimer, 2005; Wolfradt, Hempel & Miles, 2003), 학대나 방임 등의 외상적 경험에 노출된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문제해결에 유익한 대처방식을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후 성인기에도 문제나 갈등상황에 마주할 때 적절한 대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rris & Curtin, 2002; 김은정, 김진숙 2010에서 재인용). 실제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심지어 위험 단서를 파악하더라도 저항 대신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나윤, 이영호, 2018; Herman, 2022).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적 상황에서 쉽게 문제에 노출될 뿐 아니라 성적 자기주장에도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기의 시기에 부정적인 경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성적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Ports, Ford & Merrick, 2016), 아동기 피해 경험과 원하지 않은 성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man et al.,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처럼 성적 자기주장에 아동기 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뿐 아니라, 아동기 외상이 다른 변인을 거쳐 성적 자기주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발생한 아동기 외상 경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상담을 통한 효율적인 개입에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을 함께 매개변인으로 포함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인으로 단절 및 거절도식에 주목하였다. 단절 및 거절도식이란 안전・보살핌・이해・수용・존중에 대한 요구가 예측할 수 없고 일관된 방식으로 충족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로 정의된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이자 심리도식치료(schema therapy)의 창시자인 Young(2003)은 단절 및 거절도식과 같은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핵심적인 기원을 핵심적 정서 욕구충족, 생애 초기 경험, 정서적 기질 세 가지로 가정하며, 유해한 아동기의 경험이 단절 및 거절과 같은 초기 부적응 도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실제 아동기 외상과 단절 및 거절도식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 학대나 외상 경험은 단절 및 거절도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소영, 김진숙, 2020; Rezaei & Ghazanfari,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도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절 및 거절 도식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도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였다. 앞서 언급한 초기 부적응 도식에 포함되는 단절 및 거절도식은 아동기 외상과 같은 생애 초기 유해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데, Young(2003)은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성급하게 자기희생적인 관계를 맺거나, 혹은 가까운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최은영, 김정희, 최희선(2021)은 이러한 자기희생적인 태도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성행동과 관련하여 의견충돌이 발생했을 때 자신보다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하여 임신과 성병 예방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인지적 변인과 더불어 정서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뿐 아니라 정서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며(Farmer & Chapman, 2013), 앞서 심리도식치료를 제안한 Young(2003)에 따르면 개인은 형성된 심리도식에 따라 신념과 부합하는 정보는 강조하고 도식에 반하는 정보는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도식과 융합된 정서를 회피하거나 억제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도식과 함께 정서를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매개하는 또 다른 매개변인으로 정서적 요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에 주목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이란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정서를 표현한 이후의 결과를 두려워하여 정서표현을 억제하고 갈등하는 것을 의미한다(King & Emmons, 1990). 이러한 정서표현 양가성은 아동기 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외상 경험은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문소라, 최은실, 2019; Hahn, Simons & Simons, 2016), 정서표현 양가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일영, 김해란, 2018; 송연주, 채예진, 이수빈, 김영근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동기 외상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였다.

나아가, 정서표현 양가성은 성적 자기주장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King과 Emmons(1990)는 억제적인 정서표현 경향성은 갈등을 해결하거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저해함으로써 갈등을 영속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Mongrain과 Vettese(2003)는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의 명료성과 표현

의 일치성이 떨어지게 되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서 비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거나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낮은 수준의 성적 자기주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주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인인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적 변인인 정서표현 양가성 간에 순차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를 표현했을 때 타인으로부터 거절 당하거나 수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은정, 김진숙, 2010; 조현정, 이승연, 2014),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미뤄보아 단절 및 거절도식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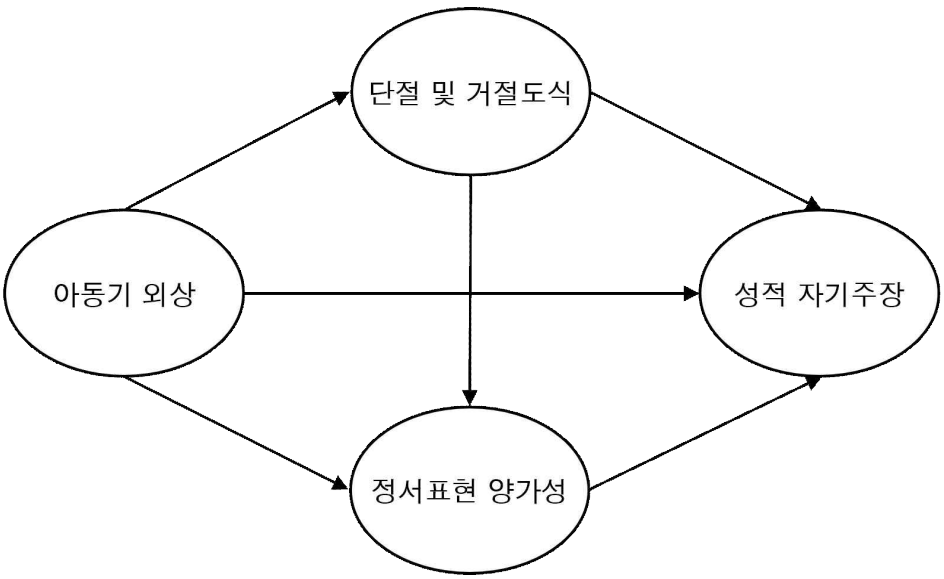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인지 변인인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 변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이 각각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뿐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와 순차적 관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상담 장면에서 여자 대학생 내담자들이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이들의 성적 자기주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 개입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문제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각각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쳐 순차적으로 매개할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아동기 외상과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아동기 외상,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은 성적 자기주장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단절 및 거절도식이 매개하는가?

가설 2-1.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단절 및 거절도식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하는가?

가설 3-1.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4]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 매개하는가?

가설 4-1.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 매개할 것이다.

Ⅲ. 이론적 배경

1. 성적 자기주장

1) 성적 자기주장의 개념

성적 자기주장(sexual assertiveness)이란 성적 접촉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와 생각,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으로 정의된다(정진아, 2016). 이러한 성적 자기주장은 원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적 활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Patricia et al., 1997), 원치 않는 성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상황적 분별력과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이지연, 이은설, 2006).

실제로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적 자기주장은 피임 도구의 사용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 성병의 감염 및 성적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하며 안전한 성적 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Morokoff et al., 2009; Noar, Carlyle & Cole, 2006; Walker & Messman-Moore, 2011; Zamboni, Crawford & Williams, 2000). 또한,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조명되고 있다(Loshek & Terrell, 2015; Zhang, Xie, Lo, Fan & Yip, 2022).

이처럼 성적 자기주장이 성적 문제에 대한 주요 예측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성폭력에 대한 통념, 젠더 고정관념, 성 역할 고정관념 등 가정과 사회에서 학습된 요인들

이 어떻게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김영희, 문승태, 강희순, 2013; 박선미, 송원영, 2012; 손강숙, 정소미, 2016; 최효선, 양수진, 2018), 보다 최근에는 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거나 이들 간의 관계성을 규명하고자 자기침묵,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 도식, 자기존중감, 의사소통능력 등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김단비, 2020; 김수정, 허찬희, 이지연, 2018; 이가연, 이정윤, 2022; 이경인, 허난설, 최수미, 2017; 유미영, 하정희, 2019; 최은영, 김정희, 최희선, 202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어떠한 경로로 사람들이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있었으나, 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이자 보다 근원적인 아동기 외상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의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인과 정서적 변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 시점에서 아동기 외상이 향후 성인기에 나타나는 성적 자기주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변인인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적 변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들 변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Banyard와 동료들(2007)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의 발생률과 이에 따른 성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성차를 보여 여자 대학생의 경우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대학생의 경우 원치 않는 성적 접촉 문제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적 문제와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김정애, 조의영, 2019; Du Toit, et al., 2018; Sasaki, Ikeda & Nishi, 202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연구 대상을 여자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아동기 외상

1) 외상의 개념과 구분

외상(trauma)이란 상당한 손상이나 고통, 그리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충격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강렬한 수준의 위협감, 공포감, 무력감, 당혹감, 경악감을 수반하는 다양한 종류의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을 외상으로 간주한다(Follette & Pistorello, 2007).

Allen(2010)은 이러한 외상을 발생 횟수에 따라 크게 일회적인 외상과 반복적인 외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인관계가 관여된 정도에 따라 인간 외적인 외상과 대인관계적 외상, 애착외상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Allen(2010)은 발생 횟수에 따라 자연재해(예: 지진, 산사태, 홍수, 해일, 토네이도, 화산 폭발 등), 기술적 재해(예: 건물 붕괴, 화학물질 유출, 원자로 파괴, 비행기 추락 등), 폭력적 범죄(예: 강도, 도둑, 폭행, 살인, 유괴, 납치, 강간 등), 관계상실(예: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폭력을 당하여 죽는 것을 목격하는 것 등)과 같이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한 심리적인 상처를 일회적 외상이라 하였으며, 부모나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와 방임을 경험하거나 전쟁터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장기

간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는 경우와 같이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반복적 외상이라고 하였다(Allen, 2010).

또한, Allen(2010)은 대인관계가 관여된 정도에 따라 대인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외상(예: 지진, 토네이도, 산사태, 홍수 등)을 인간 외적인 외상이라 하였으며, 타인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입은 상처와 피해의 경우(폭력, 강간, 살인 등)를 대인관계적 외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주 양육자나 가족과 같이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의존도가 높은 관계에서 입은 심리적 상처를 애착외상(예: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가정폭력)으로 구분하였는데, Allen(2010)은 이러한 애착외상의 경우 다른 유형의 외상보다도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으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Allen,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상 중에서도 부모나 양육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동기 외상의 장기적인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2) 아동기 외상의 개념

아동기 외상이란 만 18세 이전에 경험한 아동 양육에 책임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가해진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정의된다(김은정, 김진숙, 2010). Brown, Cohen, Johnson과 Smailes(1999)에 따르면, 아동기 외상은 크게 폭력과 같은 가혹한 행위를 뜻하는 학대와 필요한 자극이나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으로 구분되는데, Bernstein과 Fink(1998)는 아동기 외상을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서적 학대와 방임, 성적 학대 5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란 부모 혹은 양육자가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고의성을 갖고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행위(이윤연, 장현아,

2017)를 의미하며,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가치감이나 행복감을 저해하는 언어적 학대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유경, 2006)를 의미한다. 성적 학대의 경우 성인의 성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는데, 성희롱과 성폭행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든 학대행위가 성적 학대에 포함된다(김은정, 2010). 한편 방임의 경우 신체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이 있는데, 먼저 신체적 방임이란 부모 혹은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건강, 그리고 의식주 등의 양육 및 신체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이윤연, 장현아, 2017), 정서적 방임은 부모 혹은 양육자가 사랑과 소속감, 양육 및 지지를 포함한 아동의 기본적인 정서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된다(Bernstein et al., 2003).

Bernstein & Fink(1998)의 척도를 사용한 김은정과 김진숙(2010)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다섯가지 학대 유형 가운데 성적 학대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아동기 외상을 측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적 학대의 경우 다른 유형의 심리사회적 후유증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질문지를 타당화한 김은정과 김진숙(2010)은 학대와 방임을 신체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대’와 ‘방임’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 제안에 근거하여 학대와 방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아동기 외상은 단순히 외상사건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기 외상은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Guinn, Ports, Ford, Breiding & Merrick, 2019; Nolin & Ethier, 2007; Van der Kolk, 2020),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김규연, 김소빈, 김영근, 2022; 김환, 최혜라,

한수미, 2018; Infurna et al., 2016; Poole, Dobson & Pusch, 2017), 인지적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Calvete, 2014; Rezaei & Ghazanfari, 2016; Roemmele & Messman-Moore, 2011; Tezel, Kişlak & Boysan, 2015). 정서조절의 어려움, 자살사고, 대인관계 문제에서부터 성격문제(김은정, 김진숙, 2020; 김태연, 남지은, 2022; 이기범, 주해원, 현명호, 2015; 차수빈, 장혜인, 2022; Poole, Dobson & Pusch, 2018)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동기 외상의 장기적인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아동기 외상이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들의 성적 자기주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실제로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3)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Bowlby(1982)에 따르면 생애 초기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아동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애 초기 경험은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따라 성인기의 대인관계뿐 아니라 낭만적인 이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Hazan & Shaver, 1987). 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며, 타인의 반응을 과도하게 신경쓰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안하얀, 서영석, 2011). 실제로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연인관계에서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타인의 반응을 과도하게 신경 쓰며 성적 요구에 순응하거나 맞춰주는 경향이 있으며(Brewer & Forrest-Redfern, 2022), 불안정 성인애착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가연, 이정윤, 2022; Leclerc et al., 2015). 아동기 외상은 애

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환경으로 볼 수 있다(김혜진, 김현수, 2020). 이에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통해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적 자기주장이 성적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전략임을 고려할 때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문제 인식 및 해결방식을 통해서도 이들 간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감, 상처, 분노감 같은 위험 단서나 부적절한 행동들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최나윤, 이영호, 2018), 심지어 위험 단서를 파악하더라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저항 대신 복종적인 대처방식을 발달시켜 재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나윤, 이영호, 2018; Atmaca & Gençöz, 2016; Finkelhor, Ormrod & Turner, 2007; Herman, 2022).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피해를 경험할수록 원하지 않은 성관계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Goodman et al., 2019),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 아동기 경험은 성적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성적 위험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Roemmele & Messman-Moore, 2011; VanderEnde et al., 2018), 성적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orts, Ford & Merrick, 2016).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으며, 낮은 수준의 성적 자기주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맞춰줄 가능성이 있으며, 성적 갈등이 발생할 때 위험 단서를 적절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상황에 순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성적 문제 상황으로 이

어져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에 응낙할 가능성을 높이며, 성적 자기주장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3. 단절 및 거절도식

1) 초기 부적응 도식의 개념

Young, Klosko와 Weishaar(2003)는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적용하기 어려웠던 만성적인 성격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를 치료하기 위해 인지행동이론, 대상관계이론, 구성주의 및 정신분석 이론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심리도식치료를 개발하였으며, 이들에게 관찰되는 핵심적인 심리적 주제에 접근하며 '초기 부적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초기 부적응 도식이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와 같은 이른 시기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생의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광범위하고 만연한 자기-패배적 패턴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Young et al., 2003). 뿐만 아니라,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다양한 상황에서 쉽게 활성화되며, 타인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대처방식(과잉보상, 회피, 굴복)을 통해 심리도식을 강화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인관계문제 뿐 아니라 만성적인 성격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의미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역기능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하얀, 서영

석, 2011; 유성진, 권석만, 2008; Barazandeh, Kissane, Saeedi & Gordon, 2016; Janovsky, Rock, Thorsteinsson, Clark & Murray, 2020).

Young(2003)은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이 형성되는 기원을 설명하며 핵심적 정서 욕구, 생애 초기 경험, 정서적 기질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즉, 초기 부적응 도식은 핵심적 욕구의 미충족, 생애 초기 유해한 경험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정서적 기질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유성진, 권석만, 2008).

현재까지 밝혀진 초기 부적응 도식은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중심으로 단절 및 거절(disconnection/rejection),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impaired autonomy/performance), 손상된 한계(impaired limits), 타인 중심성(other-directedness), 과잉경계 및 억제(overvigilance/inhibition)의 5가지 심리도식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심리도식 영역 중에서 특히 단절 및 거절도식은 아동기 학대 경험으로 인해 가장 크게 손상되는 도식으로 알려져 있으며(Young, Weinberger, Beck, 2001),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곤란과 마찰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성진, 권석만, 2008; Janovsky, Rock, Thorsteinsson, Clark & Murray,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도 아동기 외상과 관련이 있고 대인관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단절 및 거절도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단절 및 거절도식의 개념

단절/거절도식(disconnection/rejection schema)이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안정감, 안전함, 돌봄, 사랑, 소속감 등에 대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

을 의미한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이러한 단절 및 거절도식의 개념은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정서적 결핍, 결함/수치심, 사회적 고립/소외와 같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먼저 유기/불안정 도식(abandonment/instability schema)이란 자신에게 지지와 연결감을 제공하는 대상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들은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정서적 지지, 연결감, 실질적인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 기대한다. 두번째로, 불신/학대 도식(mistrust/abuse schema)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고 속이고 이용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항상 남들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세번째, 정서적 결핍 도식(emotional deprivation schema)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러한 정서적 결핍에는 양육 결핍(애정, 관심, 따뜻함, 동반의 부재), 공감 결핍(이해, 경청, 상호 간 감정 공유의 부재), 보호 결핍(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이나 지도의 부재)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핍이 포함된다. 네번째로, 결함/수치심 도식(defectiveness/shame schema)은 자신이 결함이 있고 열등하다고 느끼며 무가치한 존재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들은 이러한 자신의 진짜 모습이 타인에게 드러나게 되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이들은 비판이나 거절, 비난 등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많이 하고, 자신의 결함에 대해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소외 도식(social isolation/alienation schema)은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며 남들과 다르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들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기대한다(Young et al., 2003).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성인기의 우울 및 불안

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김보영, 김영근, 2016; Calvete, 2014; Rezaei & Ghazanfari, 2016; Shorey, Elmquist, Anderson & Stuart, 2015), 비자살적 자해(이수정, 김종남, 2020), 대인관계 문제(이현정, 장희순, 2014; 조소영, 김진숙, 2020; Janovsky, Rock, Thorsteinsson, Clark & Murray, 2020), 성격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수, 원성두, 김은정, 2021; Barazandeh, Kissane, Saeedi & Gordon, 2016).

3) 아동기 외상과 단절 및 거절 도식 간의 관계

아동기 외상과 단절 및 거절 도식 간의 관련성은 Young(2003)이 설명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기원을 바탕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Young, Klosko와 Weishaar(2003)는 욕구가 심하게 좌절되거나 외상을 경험하는 등의 유해한 아동기 경험이 부적응적인 도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초기 부적응 도식은 학대와 방임과 같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관련이 있는데(Pilkington, Bishop & Younan, 2021), 실제 학대와 방임 등의 아동기 외상 경험은 초기 부적응 도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진, 김현수, 2020; 조소영, 김진숙, 2020; Tezel, Kislak & Boysan, 2015).

아동기 시기의 외상적 경험은 개인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Estévez, Jauregui, Ozerinjauregi & Herrero-Fernández, 2017), 구체적으로 아동기 시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가치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이며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정적 신념인 단절 및 거절도식을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조유경, 이지연, 2015; 조현정, 이승연, 2014; Goodman et al., 2019).

실제로 Rezaei와 Ghazanfari(2016)는 아동기 외상, 부정적 정서도식, 단절 및 거절도식, 경험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아동기 외상

이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장숙경과 김민정(2020)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외상이 단절 및 거절도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아동기 외상이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4) 단절 및 거절도식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단절 및 거절도식이란 안정감, 공감, 감정 공유, 수용, 존중,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자신이 기대한 바대로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된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이러한 단절 및 거절도식은 인지적 왜곡, 자기패배적 생활패턴, 그리고 대처방식을 통해 영속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도식을 치유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관계는 회피하는 반면(Tezel, Kişlak & Boysan, 2015), 도식을 촉발하고 영속화시키는 인간관계나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유지하여 자기패배적인 패턴을 보이게 된다(유성진, 권석만,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통해 단절 및 거절도식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회피적인 대처방식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길영란, 박미란, 이지연, 2016). 이러한 회피적 대처방식은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상황을 악화시켜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정, 김진숙, 2010). 남윤정과 박성희(2021)의 연구에서도 단절 및 거절도식은 적극적 스트레스대처 방식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김행신과 서수균(2015)도 단절 및 거절도식이 적

응적 방어기제 사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부적응적 방어기제 사용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될 시 부적응적 대처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적 갈등상황에서도 유사하게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실제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성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로는 유미영과 하정희(2019)가 여대생을 대상으로 거절 민감성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의 완전 매개효과를 검증한 바 있으며, 최은영, 김정희, 최희선(2021)의 연구에서도 단절 및 거절도식은 성적 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임신 및 성병 예방에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절과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자신이 결함이 있고 무가치한 존재라 생각하며 있는 그대로 수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데(Goodman et al., 2019), 이로 인해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 걱정하며 성적 상황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복종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유미영, 하정희, 2019; McKay, Greenberg & Fanning,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도 단절 및 거절도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4. 정서표현 양가성

1) 정서표현 양가성의 개념

정서표현 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King & Emmons, 1990). 정서표현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인한 역기능적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것은 암, 심혈관 질환과 같이 다양한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Chapman, Fiscella, Kawachi, Duberstein & Muennig, 2013; Denollet, Gidron & Conraads, 2010), 신체 증상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어유경, 최지영, 박수현, 2019; 이주현, 김은정, 2020), 우울감, 불안감 등의 심리적 문제와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김대희, 김명식, 2021; 김태연, 최은실, 2022; 정호연, 2018; 최연숙, 홍혜영, 2016; Brockmeyer et al., 2013; Bryan, Young, Lucas & Quist, 2018).

King과 Emmons(1990)도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신체적, 심리적 연관성을 연구하였는데 정서표현 양가성은 심리적 고통의 여러 지표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신체적 증상을 측정하는 문항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의 욕구가 있음에도 이를 억제하며 갈등을 경험하는 심리 내적 과정에 주목하였고, 개인의 정서적인 행동을 행동 이면의 목표와 신념의 맥락에서 이해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서표현 양가성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는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정서 표현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거나, 정서를 표현한 후에 이를 후회하는 것과 같이 욕구들 간의 갈등으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내용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표현 양가성이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경우 타인에게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며 이에 바탕이 되는 것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임을 설명하며,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정서표현 양가

성 척도를 번안 및 타당화하여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를 제시하였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한국 문화의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의 경우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기 방어적 양가성은 정서표현으로 인해 타인에게 거부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계 관여적 양가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최해연, 민경환, 2007).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는 단순히 정서적 표현을 적게 하는 것이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서표현에 대한 내적 갈등이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서표현 양가성 변인에 초점을 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표현 양가성은 심리적 안녕감, 대인관계 문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미숙, 안귀여루, 2021; 이해령, 박은영, 2021; 최서원, 이정윤, 2021), 이상섭식행동, 데이트 폭력 피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김은하, 이신영, 2016; 손일영, 김해란,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에 따라 정서적 변인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에 초점을 두어 정서표현 양가성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아동기 외상과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관계

Eisenberg, Cumberland와 Spinrad(1998)의 정서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아동의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그리고 정서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의 학대 및

방임과 같은 외상을 경험한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소라, 최은실, 2019; 조소영, 김진숙, 2020; Hahn, Simons & Simons, 2016)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은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관계나 신념의 기반이 되는데(Herman, 2022),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을 형성하게 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를 갖게 된다(김은정, 김진숙, 2010; Coates & Messman-Moore, 2014), 결과적으로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가 수용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서표현에 억제적인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김혜원, 이지연, 2020; 정명희, 김명찬, 2018;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실제로 Honkalampi와 동료들(2020)은 아동기의 학대와 방임과 같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도 학대와 방임과 같은 아동기 외상 경험은 정서표현 양가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일영, 김해란, 2018; 송연주, 채예진, 이수빈, 김영근,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3)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Noar와 동료들(2006)은 안전한 성적 행동과 성적 질병에 대한 예방적 개입에 있어 의사소통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으며, 최명현(2005)도 성적 자기주장에 있어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인임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통해 이들 간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 표현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갈등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정서의 사회적이고 정보적인 기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 상태와 욕구를 알아차리게 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Allen, 2010; Chervonsky & Hun, 2017; Thomson, Overall, Cameron & Low, 2018). 또한,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김혜진, 김현수, 2020; 이효원, 정남운, 2021).

그러나,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 상태에 대한 주의와 명료성이 낮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하며(천부경, 양난미, 2013; King & Emmons, 1990),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도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일치성이 낮아져 의사소통의 명료성과 표현의 일치성이 떨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Mongrain & Vettese, 2003).

실제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의미하는 감정표현 불능증은 의사소통능력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alokay & Aydin, 2023; Sancar & Aktas. 2019). 정서표현 양가성과 대처방식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불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인 대처방략을 적게 사용하고 부적응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정, 김진숙, 2010; 김주연, 박경훈, 이영순, 2015).

즉,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서 회피하는 대처방식

을 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명확하고 주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 정서적 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친밀한 관계나 낭만적인 이성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이은수, 2019; Ben-Ari & Lavee, 2011; Ivanova & Watson, 2010).

정리하면, 정서표현의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경향이 있고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므로, 이는 건강한 성적 관계를 유지하고 성적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인 성적 자기주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5.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관계는 Young(2003)이 설명한 심리도식 영속화의 개념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Young(2003)은 심리도식이 인지적 왜곡과 자기-패배적 패턴, 대처방식을 통해 영속화된다고 하였는데, 개인은 심리도식을 확증하는 정보는 강조하고 도식에 반하는 정보는 최소화하는 인지적 왜곡을 통해 심리도식을 강화시키게 된다(유성진, 권석만, 2008). 아울러, 초기 부적응 도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도식과 관련된 사고나 정서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데(우주영, 2015),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고통스러운 정서를 차단하기 위해 느낌 자체를 마비시키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관계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안하얀, 서영

석, 2010; Bishop, Younan, Low & Pilkington, 2022; McKay, Greenberg & Fanning, 202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부적응적인 도식은 타인과 세상에 대해 기대하고 반응하는 틀이 되어 이후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Young et al., 2003),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표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로 인해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김은정, 김진숙, 2010; Rezaei & Ghazanfari, 2016), 대인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단절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유아진, 서영석, 2017; Tezel, Kişlak & Boysan, 2015). 즉, 정서를 표현했을 때 타인으로부터 거부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가 정서표현의 갈등과 억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단절 및 거절도식은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감정표현 불능증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조소영, 김진숙, 2020; Abdolmohammadi, Hosseinzadeh, Abadi & Khaleghi, 2016),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도식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이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진희, 김해란, 2017; 이주희, 김영근, 2020; 조현정, 이승연,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하였다.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IRB의 승인을 받아(승인번호: SSWUIRB-2023-039) 진행된 연구이며, 만 19세 이상 29세 미만에 해당하는 여자 대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순차 매개모형과 같이 복잡한 모형의 경우에는 G*Power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Schoemann, Boulton & Short, 201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최종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연구대상자 수는 최소 240명에서 최대 54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과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므로, 최종적으로 4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대행업체(예:마이크로밀 엠브레인)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수거된 설문 응답은 410부였으나, 아동기 외상 여부를 묻는 문항에 모두 ‘전혀 없었다(1점)’로 응답하여 외상 경험이 전무한 경우와 이성교제 경험을 묻는 문항에 ‘없음’으로 응답하여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127부를 제외하였다. 또한 문항에 무작위로 응답하거나 한 줄로 응답하는 등의 불성실한 응답(박원우 등, 2020) 55부를 제외하여 총 22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아동기 외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을 측정하고자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하였으며, 이유경(2006)이 번안하고,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타당화 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형(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과 같이 5가지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성적 학대의 경우 다른 유형의 심리사회적 후유증보다 심각하며,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선행연구 흐름에 따라(김은정, 김진숙, 2010; 손승희, 2017; 조소영, 김진숙, 2020), 본 연구에서도 성적 학대 문항은 제외하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질문지를 타당화한 김은정과 김진숙(2010)은 하위요인을 신체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대'와 '방임'과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 제안에 근거하여 학대와 방임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아동기 외상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없음(1점)' 부터 '자주 있음(4점)' 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나 방임 등 외상 경험이 많은 것으로 간주한다. 성적 학대 하위요인을 제외하고 학대, 방임의 두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김은정과 김진숙(2010)의 연구에서 문항의 전체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Cronbach's α는 학대 .86, 방임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하위 요인의 경우 학대 .86, 방임 .85로 나타났다.

[표 1] 아동기 외상의 문항구성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학대	10	1, 2, 3, 4, 5 6, 7, 8, 9, 10	.86
방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5
전체		20문항	.90

* 역채점 문항

2) 성적 자기주장 척도

성적 자기주장(sexual assertiveness)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atricia 등(1997)이 개발한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척도(Sexual Assertiveness Scale; SAS)를 최명현(2005)이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atrica 등(1997)의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주장을 '주장', '거절', '예방'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최명현(2005)은 이를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장' 요인을 제거하고 '거절'과 '예방'요인만 채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성적 자기주장의 거절, 예방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항은 총 12문항,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적접촉거절' 6문항과 '성적질병예방' 6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 최명현(2005)의 연구에서 문항의 전체 Cronbach's α계수는 .82로 나타났으며, 하

위요인의 경우 거절 요인은 .71, 예방 요인은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1,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8, .91로 나타났다.

[표 2] 성적 자기주장의 문항구성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성적접촉거절	3	2, 3, 6 (거절)	.88
	3	1*, 4*, 5* (거절 못함)	
성적질병예방	3	8, 11, 12 (예방)	.91
	3	7*, 9*, 10* (예방안함)	
전체		12문항	.91

* 역채점 문항

3) 단절 및 거절도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을 측정하고자 Young(1998)이 개발한 도식질문지 단축형(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YSQ-SF)을 이미열(2006)이 번안한 한국판 단축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미열(2006)이 번안한 도식질문지 단축형은 15개 도식을 측정하는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 가장 손상이 심하고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의 흐름에 따라(장숙경, 김민정, 2020; 유미영, 하정희, 2019), 단절 및 거절도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단절 및 거절도식은 총 25문항으로 각각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결핍',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사회적 고립/소외', '결함/수치심' 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응답 방식은 '완전히 다름(1점)'에서부터 '완전히 일치(6점)'까지

6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수준의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권진희, 김해란(2017)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96이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정서적 결핍 도식이 .93, 유기/불안정 도식이 .89, 불신/학대 도식이 .86, 사회적 고립/소외 도식이 .92, 결함/수치심 도식이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7, .90, .87, .93, .91로 나타났다.

[표 3] 단절 및 거절도식의 문항구성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정서적 결핍	5	1, 2, 3, 4, 5	.87
유기/불안정	5	6, 7, 8, 9, 10	.90
불신/학대	5	11, 12, 13, 14, 15	.87
사회적 고립/소외	5	16, 17, 18, 19, 20	.93
결함/수치심	5	21, 22, 23, 24, 25	.91
전체		25문항	.96

4)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측정하고자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하였고,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한국의 문화적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Korean version: AEQ-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1문항으로, 타인에게 거절당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서를 억제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13문항과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관계-관여적 양가성'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 갈등을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최해연,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0으로 보고 되었으며, 하위척도의 경우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89,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92, 관계관여적 양가성 .86으로 나타났다.

[표 4] 정서표현 양가성의 문항구성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자기-방어적 양가성	13	1, 2, 3, 4, 5, 6, 7, 9, 10, 11, 12, 14, 15	.92
관계-관여적 양가성	8	8, 13, 16, 17, 18, 19, 20, 21	.86
전체		21문항	.94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와 SPSS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아동기 외상, 성적 자기주장,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값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네 번째,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Hayes(2015)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모델 6번으로 설정하였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10,000번으로 설정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Ⅴ.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여자 대학생 총 228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92세(SD=1.98)였으며, 만 19세~22세가 151명(66.2%)으로 가장 많았고, 만 23~25세가 63명(27.6%), 만 26~28세가 14명(6.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의 경우 남녀 공학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207명(90.8%), 여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21명(9.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의 경우 4학년이 88명(38.6%), 3학년이 61명(26.8%), 2학년이 46명(20.2%), 1학년이 33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성교제 횟수의 경우 1명이 77명(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이 67명(29.4%), 4명 이상이 50명(21.9%), 3명이 34명(14.9%)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28)

특성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연령	19세~22세	151	66.2
	23세~25세	63	27.6
	26세~28세	14	6.2
대학 소재지	남녀 공학	207	90.8
	여자 대학교	21	9.2

학년	1학년	33	14.5
	2학년	46	20.2
	3학년	61	26.8
	4학년	88	38.6
이성교제 횟수	1명	77	33.8
	2명	67	29.4
	3명	34	14.9
	4명 이상	50	21.9

2) 연구 대상자의 아동기 외상 경험 유형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의 외상 경험 여부와 이들이 경험한 외상사건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정서적 학대가 199명(87.3%)으로 가장 많이 경험한 외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방임 179명(78.4%), 신체적 방임 171명(74.8%), 신체적 학대 124명(54.4%)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연구 대상자의 외상 유형 빈도분석 결과(N=228)

구분	없음		있음	
	사례수(명)	백분율(%)	사례수(명)	백분율(%)
신체적 학대	104	45.6	124	54.4
신체적 방임	57	25.0	171	74.8
정서적 학대	29	12.7	199	87.3
정서적 방임	49	12.7	179	78.4

3) 연구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의 정규성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값을 산출하여 그 결과를 [표 7] 제시하였다. Kline(2010)은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10이내의 기준에 부합해야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우 각 변인들의 왜도는 [-1.33~1.65]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도의 경우 [-0.74~3.37]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 Kline(2010)이 제시한 정규성 가정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 외상, 성적 자기주장,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은 성적 자기주장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19, p<.01), 단절 및 거절도식(r=.54, p<.001), 정서표현 양가성(r=.27,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적 자기주장은 단절 및 거절도식(r=-.31, p<.001), 정서표현 양가성(r=-.19,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단절 및 거절도식은 정서표현 양가성(r=.60,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228)

	1	1a	1b	2	2a	2b	3	3a	3b	3c	3d	3e	4	4a	4b
1															
1a	.89***														
1b	.88***	.57***													
2	-.19**	-.13	-.21**												
2a	-.19**	-.11	-.23**	.88***											
2b	-.16*	-.12	-.16*	.89***	.56***										
3	.54***	.42***	.54***	-.31***	-.34***	-.21**									
3a	.61***	.43***	.65***	-.17*	-.21**	-.09	.75***								
3b	.34***	.26***	.33***	-.27***	-.26***	-.22**	.81***	.42***							
3c	.45***	.41***	.38***	-.27***	-.30***	-.19**	.82***	.52***	.60***						
3d	.49***	.37***	.49***	-.24***	-.27***	-.15*	.88***	.65***	.60***	.63***					
3e	.40***	.30***	.41***	-.33***	-.36***	-.22**	.88***	.57***	.66***	.64***	.76***				
4	.27***	.21**	.26***	-.19**	-.23***	-.10	.60***	.39***	.52***	.45***	.48***	.61***			
4a	.30***	-.23***	.29***	-.20**	-.23***	-.12	.62***	.43***	.52***	.47***	.51***	.63***	.96***		
4b	.17*	.14*	.16*	-.13*	-.19**	-.05	.44***	.24***	.43***	.32***	.35***	.46***	.88***	.73***	
평균	1.60	1.56	1.65	4.26	4.10	4.42	2.36	2.12	2.64	2.59	2.24	2.22	3.11	2.95	3.39
표준편차	0.48	0.54	0.54	0.65	0.73	0.75	0.94	1.00	1.24	1.08	1.17	1.17	0.80	0.88	0.81
왜도	1.44	1.65	0.96	-1.14	-0.91	-1.33	0.76	0.83	0.77	0.58	1.02	0.87	-0.29	-0.15	-0.52
첨도	3.19	3.37	0.78	1.09	0.65	1.09	0.06	0.10	-0.19	-0.33	0.46	-0.12	-0.37	-0.74	-0.11

1.아동기 외상 1a.학대 1b.방임 2.성적 자기주장 2a.성적접촉거절 2b.성적질병예방 3.단절 및 거절도식 3a.정서적 결핍, 3b.유기/불안정 3c.불신/학대 3d.사회적 고립/소외 3e. 결함/수치심 4.정서표현 양가성 4a.자기-방어적 양가성 4b.관계-관여적 양가성

*p<.05, **p<.01, ***p<.001,

2. 매개효과 검증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Hayes(2015)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Model을 6번으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적 자기주장을 예측하는 아동기 외상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226)=8.85$, $p<.01$), 설명력은 4%로 나타났다($R^2=.04$). 즉, 아동기 외상의 1 표준편차 증가는 성적 자기주장의 .19 표준편차 감소를 가져왔다($\beta=-.19$, $t=-2.98$, $p<.01$).

다음으로 단절 및 거절도식을 예측하는 아동기 외상의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226)=94.49$, $p<.001$),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R^2=.3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절 및 거절도식에 대한 아동기 외상의 영향력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54$, $t=9.72$, $p<.001$), 아동기 외상의 1 표준편차 증가는 단절 및 거절도식의 .54 표준편차 증가를 가져왔다.

세 번째로, 정서표현 양가성을 예측하는 아동기 외상과 단절 및 거절도식의 회귀모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225)=63.17$, $p<.001$), 설명력은 36%로 나타났다($R^2=.3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은 정서표현 양가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8$, $t=-1.26$, $p=.21$), 단절 및 거절도식은 정서표현 양가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4$, $t=10.06$, $p<.001$). 즉, 단절 및 거절도식의 1 표준편차 증가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64 표준편차 증가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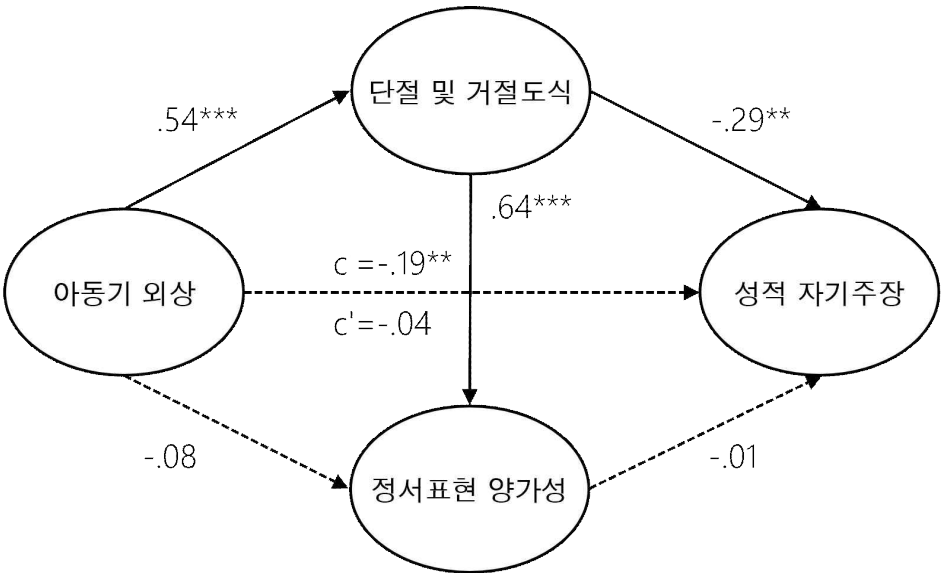
네 번째로, 성적 자기주장을 예측하는 아동기 외상,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3,224)=8.07, p<.001),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R^2=.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의 경우 성적 자기주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4, t=-.48, p=.63), 단절 및 거절도식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주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9, t=-3.15, p<.01). 즉, 단절 및 거절도식의 1 표준편차 증가는 성적 자기주장의 .29 표준편차 감소를 가져왔다. 반면, 정서표현 양가성은 성적 자기주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 t=-.09, p=.93).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8] 매개효과 검증 결과(N=228)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성적 자기주장	아동기 외상	-.26	.09	-.19	-2.98**
	F(1,226)=8.85, p=.003, R^2=.04				
단절 및 거절	아동기 외상	1.06	.11	.54	9.72***
	F(1,226)=94.49, p=.000, R^2=.30				
정서표현 양가성	아동기 외상	-.13	.11	-.08	-1.26
	단절 및 거절	-.54	.05	.64	10.06***
	F(2,225)=63.17, p=.000, R^2=.36				
성적 자기주장	아동기 외상	-.05	.10	-.04	-.48
	단절 및 거절	-.20	.06	-.29	-3.15**
	정서표현 양가성	-.01	.07	-.01	-.09
	F(3,224)=8.07, p=.000, R^2=.10				

**p<.01, ***p<.001



[그림 2] 최종모형

**p<.01, ***p<.001, c=총 효과, c′=직접 효과

3. 간접효과 검증

아동기 외상과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10,000번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이 때, 부트스트래핑 방법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의 범위에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기 외상이 단절 및 거절도식을 거쳐 성

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6, 95% Bias-corrected CI:-.27~-.05). 즉,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아동기 외상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쳐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0, 95% Bias-corrected CI:-.01~.02). 즉,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이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쳐 성적 자기주장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경우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0, 95% Bias-corrected CI:-.06~.05). 즉,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순차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4-1은 기각되었다.

[표 9] 간접효과 Bootstrapping 분석 결과(N=228)

Indirect effects	Bootstrapping estimates			95% 신뢰구간	
	B	*β*	*SE*	Boot *LLCI*	Boot *ULCI*
아동기 외상 → 단절 및 거절도식 → 성적 자기주장	-.21	-.16	.06	-.27	-.05
아동기 외상 → 정서표현 양가성 → 성적 자기주장	.00	.00	.01	-.01	.02
아동기 외상 → 단절 및 거절도식 → 정서표현 양가성 → 성적 자기주장	.00	.00	.03	-.06	.05

Ⅵ. 논의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미만 여자 대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각각 매개하는지, 나아가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아동기 외상, 성적 자기주장,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아동기 외상은 성적 자기주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기의 유해한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수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신념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 과도하게 상대방의 반응에 굴복하거나, 자기희생적 패턴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안하얀, 서영석, 2011; 유성진, 권석만, 2008; Young et al., 2003)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기 외상은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기에 외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단절 및 거절 도식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장숙경, 김민정, 2020; 최나윤, 이영호, 2018; Pilkington, Bishop & Younan, 2021)와 아동기 외상이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은정, 김진숙, 2010; 이은민, 최은주, 이주희, 202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나아가 단절 및 거절도식은 성적 자기주장과 유의한 부적 상관, 정서표현

양가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절 및 거절도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요구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며,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여 성관계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최은영, 김정희, 최희선, 2021; Goodman et al., 2019)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높은 수준의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일수록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조소영, 김진숙, 2020; Abdolmohammadi, Hosseinzadeh, Abadi & Khaleghi, 2016). 끝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은 성적 자기주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경향이 있으며(Dalokay & Aydin, 2023; Mongrain & Vettese, 2003),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갈등상황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여 정서적인 지원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대인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기 쉽다는 선행연구(이효원, 정남운 2021; 최해연, 민경환, 이동귀, 2008; Ben-Ari & Lavee, 2011)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본 결과, 단절 및 거절도식은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에 부정적이고 외상적 경험에 노출될수록 단절 및 거절도식의 수준이 높아지며(Rezaei & Ghazanfari, 2016; Tezel, Kislak & Boysan, 2015; 장숙경, 김민정 2020), 높아진 단절 및 거절도식의 수준은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선행연구(유미영, 하정희, 2019)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발달적 시점에서 아동기의 외상 경험과 이후 성인기의 성적 문제와의 관련성 및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아동기에 학대와 방임 등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결함이 있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타

인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수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단절 및 거절도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높아진 단절 및 거절도식은 성인기의 성적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애정이나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원하지 않는 상대방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은 정서표현 양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학대와 방임을 경험하는 등의 외상적 경험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손일영, 김해란, 2018; Krause, Mendelson & Lynch, 2003)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며, 아동기 외상 경험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은정, 김진숙, 2010; 조현정, 이승연, 2014). 이처럼 아동기 외상과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관계에 대한 혼재된 결과는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또 다른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조현정과 이승연(2014)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학대 경험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기 학대가 정서표현 양가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단절 및 거절도식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김은정과 김진숙(2010)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외상은 정서표현 양가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정서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아동기 외상과 정서표현 양가성 사이를 매개할 변인으로 단절 및 거절도식을 투입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동기 외상이 단절 및 거절도식을 거쳐 정서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 외상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단절 및 거절도식을 매개로 하여 정서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기 유해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무가치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이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수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이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 역시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Mongrain & Vettese, 2003)와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이효원, 정남운, 2021)를 야기하며 이성관계 만족도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은수, 2019)를 근거로 하여 정서표현 양가성이 성적 자기주장에도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정서표현 양가성은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여 낮은 이성관계 만족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이은수, 2019; Mongrain & Vettese, 2003)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처럼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가 예상과 달리 나온 이유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또 다른 변인을 통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극적 대처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효원, 정남운, 2021), 김혜원과 이지연(2020)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정서표현의 억제와 수동적 갈등대처방식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김혜원, 이지연, 2020)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변인으로 차례대로 투입한 결과, 이들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상이 단절 및 거절도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조소영, 김진숙, 2020; Rezaei & Ghazanfari, 2016; Roemmele & Messman-Moore, 2011), 단절 및 거절도식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진희, 김해란, 2017; 이주희, 김영근, 2020)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서표현 양가성이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기 학대와 방임 등의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경험하며, 단절 및 거절에 대한 신념은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 양가적인 태도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높아진 정서표현 양가성이 직접적으로 성적 자기주장의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가운데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여자 대학생들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초기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폭력에 대한 통념, 성 역할 고정관념, 젠더 고정관념 등 가정과 사회에서 학습된 요인들이 주를 이뤄왔으며,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불안정 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애착 이론을 기반으로 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이자 보다 근원적인 아동기 외상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

를 통해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지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를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와 방임과 같은 외상적 경험이 단절 및 거절도식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단절 및 거절도식이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야기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기 외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개입할 때 이들의 아동기 외상으로 인해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니게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지적 개입을 통해 이러한 도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아동기 외상 경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형성된 인지도식인 단절 및 거절도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상담자는 자신이 결함 있고 무가치한 존재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인해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담자에게 과거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 인해 단절 및 거절 도식을 형성하게 된 배경과 이러한 도식이 유발하는 역기능적인 대처방식을 자각하도록 하여 자기 이해를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으며(장숙경, 김민정, 2020), 단절 및 거절도식이 촉발될 때 가치 명료화와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적 탈융합을 통해 심리적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도식과 융합된 자기비판적 생각과 자기패배적 행동 대신에 자기자비로 대처하여 역기능적 대처방식에서 보다 건강하고 적응적인 방법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개입함으로써(Hayes & Strosahl, 2015; McKay, Greenberg & Fanning, 2022) 성적 상황에서 자기주장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셋째, 비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옴으로써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은 성병 감염 및 성적피해를

줄이고 원하지 않는 임신과 그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함에 따라 여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여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적 상황에서 자기주장을 하기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이를 검증하는 하나의 시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조사 진행과정은 익명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나 성적 자기주장과 같은 민감하면서도 사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 대상자들이 방어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응답하여 답변이 긍정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첨가하거나, 면접이나 사례분석을 통한 질적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미만의 여자 대학생이면서 동시에 아동기 외상과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성적 자기주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의사소통 전략임을 고려할 때, 실제 성적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연구 참여자를 제한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아동기 외상 경험 평균값이 낮게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연구 대상자 가운데 아동기의 학대와 방임과 같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다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아동기 외상을 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 간의 관계성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남성 또한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남성을 포함하여 성적 자기주장 행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남자 대학생을 포함한 성적 자기주장 척도의 타당화 연구(정진아, 전혜정, 천성문, 2018)가 이루어진 바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진행한다면 성적 자기주장 행동에 대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신체적 학대와 방임의 하위유형을 포함한 아동기 외상의 개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최근에는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과 관련하여 만 18세 이전에 아동이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역경을 포함한 아동기 역경(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이 주요 변인으로 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아동기 역경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켜 아동기 역경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요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효과와 정서표현 양가성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들을 보다 폭넓게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권진희, 김해란 (2017). 단절 및 거절도식과 대인관계 문제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5**(1), 13-24.

길영란, 박미란, 이지연 (2016). 초기부적응도식, 스트레스,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 결혼만족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3**(2), 105-129.

김규연, 김소빈, 김영근 (2022). 대학생의 아동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 경험회피와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3**(5), 57-79.

김단비 (2020). 남녀대학생의 자기존중감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8), 61-88.

김대희, 김명식 (2021). 20대 성인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1), 51-71.

김미숙, 안귀여루 (2021). 청소년의 정서인식명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심리발달연구, 2**(2), 1-20.

김보영, 김영근 (2016). 초기부적응도식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6**(3), 403-422.

김수정, 허찬희, 이지연 (2018). 불안정 성인애착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논총, 34**(1), 111-139.

김승미, 김정규 (2021).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2**(5), 3133-3147.

김승수, 원성두, 김은정 (2021).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불안정성이 경계선 성격 성향에 미치는 영향: 단절 및 거절 도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7**(1), 39-54.

김영희, 문승태, 강희순 (2013).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66-175.

김은정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김은정, 김진숙 (2020).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성인기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차별적 경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3), 23-44.

김은하, 이신영 (2016). 여자대학(원)생의 자아분화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한 심리적 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 학교, 13**(1), 181-204.

김정애, 조의영 (2019).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이 임신인식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5), 403-412.

김주연, 박경훈, 이영순 (2015). 정서경험 군집에 따른 정서조절전략 및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표현 양가성의 군집비교. **재활심리연구, 22**(2), 377-391.

김태연, 남지은 (2022).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성인진입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 성인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2), 577-598.

김태연, 최은실 (2022).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5**(2), 73-91.

김행신, 서수균 (2015).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방어기제의 매개효과. **수상해양교육연구, 27**(3), 656-671.

김혜경 (2017). 대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가 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8**(1), 31-42.

김혜원, 이지연. (2020).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 경험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억제와 수동적 갈등대처방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31**(3), 145-165.

김혜진, 김현수 (2020). 초기성인의 낭만관계 친밀감 두려움 예측을 위한 구조모형의 분석: 아동기 정서적 학대, 단절/거절 초기부적응 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을 중심으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5**(1), 55-76.

김환, 최혜라, 한수미 (2018). 아동기 학대 경험이 성인기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분석. **인간이해, 39**(1), 1-21.

남윤정, 박성희 (2021).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대인관계만족,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적극적 스트레스대처 방식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9), 185-200.

문소라, 최은실 (2019). 아동기 외상 경험이 청소년기 외상 관련 증상에 미치는 영향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4**(1), 1-19.

박선미, 송원영 (2012).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관련 경험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65-280.

박원우, 마성혁, 배수현, 지선영, 이유우, 김자영 (2020). 설문조사에서 불성

실 응답의 탐지방법과 제거의 효과. **경영학연구, 49**(2), 331-364.

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적안녕감: 아동・청소년・성인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189-207.

손강숙, 정소미 (2016).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41-457.

손승연, 임성문 (2011). 성인애착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관계. **대학생활연구, 17**(2), 17-36.

손승희 (2017).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43-763.

손일영, 김해란 (2018).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간의 관계: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 115-140.

송연주, 채예진, 이수빈, 김영근 (2021). 대학생의 대인간 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2), 159-184.

안지인, 고영건 (2014). 성인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과 애착이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233-251.

안하얀, 서영석 (2010). Young의 단절 및 거절도식, 부정적 기분, 대인관계문제: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47-865.

안하얀, 서영석 (2011). 성인애착과 Young의 단절 및 거절도식에 따른 집단 분류와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43-969.

어유경, 최지영, 박수현 (2019). 정서억제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자기구성개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3), 631-646.

우주영 (2015). 단절 및 거절도식과 성격특성간의 관계에서 억제형 대처양식,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7**(3), 447-465.

유미영, 하정희 (2019). 여대생의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1), 47-66.

유성진, 권석만 (2008). 심리치료에서 도식과 양식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91-117.

유아진, 서영석 (2017).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적 단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5), 41-60.

유외숙, 박경 (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대학생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93-812.

이가연, 이정윤 (2022). 불안정 성인애착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순차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1), 87-109.

이경인, 허난설, 최수미 (2017).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남녀대학생의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성인애착과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여성, 22**(4), 551-567.

이기범, 주해원, 현명호 (2015).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21-36.

이미열 (2006). **청소년기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수정, 김종남 (2020). 청소년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

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1715-1741.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연, 장현아 (2017).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191-209.

이은민, 최은주, 이주희 (2022).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9), 235-261.

이은수 (2019).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 관계 : 정서표현의 양가성과 자기은폐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8**(3), 91-109.

이주현, 김은정 (2020). 정서 신념과 신체화 증상 간의 관계: 정서 억제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1**(1), 1185-1200.

이주희, 김영근 (2020). 단절 및 거절 도식과 외로움의 관계: 거절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및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1**(5), 185-211.

이지연, 이은설 (2006). 여성용 성적 자기주장성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7**(1), 47-62.

이해령, 박은영 (202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낙담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 매개효과.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7**(4), 373-389.

이현정, 장희순 (2014). 청소년의 복합 및 다중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1), 39-59.

이효원, 정남운 (2021).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4), 1-12.

장숙경, 김민정 (2020).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

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단절 및 거절 도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339-364.

정명희, 김명찬 (2018). 애착외상 생존자의 자기표상과 정서경험에 대한협력적 자문화기술지. **상담학연구, 19**(6), 337-357.

정진아 (2016). **대학생용 성적자기주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임상약학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진아, 전혜정, 천성문 (2018). 대학생용 성적자기주장 척도개발 및 타당화. **교육치료연구, 10**(2), 279-296.

정호연 (2018). 대학생의 성장기 부모화 경험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5), 185-211.

조소영, 김진숙 (202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감정표현불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3), 323-352.

조유경, 이지연 (2015).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과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6**(1), 323-343.

조현정, 이승연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1), 33-53.

차수빈, 장혜인 (2022).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경계선성격 성향에 미치는 영향: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5**(2), 1-23.

천부경, 양난미 (2013).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정서강도, 정서주의, 정서명확성, 정서표현양가성의 군집비교. **한국심리학회: 일반, 32**(3), 719-733.

최나윤, 이영호 (2018). 아동기 외상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자기개념 및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2), 137-166.

최명현 (2005).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서원, 이정윤 (2021).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42**(2), 19-34.

최연숙, 홍혜영 (2016).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4), 295-311.

최은영, 김정희, 최희선 (2021).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과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효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8**(11), 203-234.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1**(4), 71-89.

최해연, 민경환, 이동귀 (2008). 정서표현신념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역할. **상담학연구, 9**(3), 1063-1080.

최효선, 양수진 (2018). 성인 초기 여성의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 만족도: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431-450.

Abdolmohammadi, K., Hosseinzadeh, M., Abadi, F. G. S., & Khaleghi, M. (2016).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lexithymia and early maladaptive schema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abriz. *European Online Journal of Natural and Social Sciences, 5*(2), 399-405.

Allen, J. G. (2010). **트라우마의 치유[*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권정혜, 김정범, 조용래, 최혜경, 최윤경, 권호인 공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5년 출판).

Atmaca, S., & Gençöz, T. (2016). Exploring revictimization process among Turkish women: The rol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on the link between child abuse and partner violence. *Child abuse & neglect, 52*, 85-93.

Banyard, V. L., Ward, S., Cohn, E. S., Plante, E. G., Moorhead, C., & Walsh, W. (2007). Unwanted sexual contact on campus: A comparison of women's and men's experiences. *Violence and victims, 22*(1), 52-70.

Barazandeh, H., Kissane, D. W., Saeedi, N., & Gordon, M. (2016). A systematic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4*, 130-139.

Ben-Ari, A., & Lavee, Y. (2011).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intimate relationships: A shift from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to dyadic attribut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2), 277-284.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Bernstein, D. P., Stein, J. A., Newcomb, M. D., Walker, E., Pogge, D., Ahluvalia, T., … Zule, W.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creening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27*(2), 169-190.

Bishop, A., Younan, R., Low, J., & Pilkington, P. D. (2022).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depression in adulthood: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9*(1), 111-130.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Brewer, G., & Forrest-Redfern, A. (2022). Attachment anxiety, rape myth acceptance, and sexual complia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7-8), NP4626-NP4639.

Brockmeyer, T., Holtforth, M. G., Krieger, T., Altenstein, D., Doerig, N., Friederich, H. C., & Bents, H. (2013).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in major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7), 862-864.

Brown, J., Cohen, P., Johnson, J. G., & Smailes, E. M. (1999). Childhood Abuse and Neglect: Specificity of Effects on Adolescent and Young Adult Depression and Suicidal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12), 1490-1496.

Bryan, J. L., Young, C. M., Lucas, S., & Quist, M. C. (2018). Should I say thank you? Gratitude encourages cognitive reappraisal and buffers the negative impa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0*, 253-258.

Burgess, R. L., & Conger, R. D. (1978). Family Interaction in Abusive, Neglectful, and Normal Families. *Child Development, 49*(4), 1163-1173.

Calvete, E. (2014). Emotional abuse as a predictor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adolescents: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depressive and social anxiety symptoms. *Child Abuse & Neglect, 38*(4), 735-746.

Chapman, B. P., Fiscella, K., Kawachi, I., Duberstein, P., & Muennig, P. (2013). Emotion suppression and mortality risk over a 12-year follow-up.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75*(4), 381-385.

Chervonsky, E., & Hunt, C. (2017). Suppression and expression of emotion in social and interpersonal outcomes: A meta-analysis. *Emotion, 17*(4), 669-683.

Coates, A. A., & Messman-Moore, T. L. (2014). A structural model of mechanisms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following childhood psychological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38*(1), 103-113.

Dalokay, E. B., & Aydin, A.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alexithymia, communication skills and mental well-being of nurses' in Turkey: A cross-sectional study.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43*, 81-86.

Denollet, J., Gidron, Y., Vrints, C. J., & Conraads, V. M. (2010). Anger, suppressed anger, and risk of adverse events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The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 105*(11), 1555-1560.

Du Toit, E., Jordaan, E., Niehaus, D., Koen, L., & Leppanen, J. (2018). Risk factors for unplanned pregnancy in women with mental illness living in a developing country.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21*, 323-331.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Erikson, E. H. (1994). *Identity and the life cycle.* WW Norton & company.

Estévez, A., Jauregui, P., Ozerinjauregi, N., & Herrero-Fernández, D.

(2017). The Rol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the Appearance of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in Adult Women Victims of Child Abuse.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6*(8), 889-909.

Farmer, R. F., & Chapman, A. L. (2013). **인지행동치료에서의 행동개입** [*Behavioral interventions in cognitive behavior therapy*]. (하은혜, 박중규, 송현주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는 2008에 출판).

Finkelhor, D., Ormrod, R. K., & Turner, H. A. (2007). Re-victimization patterns in a national longitudi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Child abuse & neglect, 31*(5), 479-502.

Follette, V. M., & Pistorello, J. (2007). *Finding life beyond trauma: Using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to heal from post-traumatic stress and trauma-related problems.* Oakla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French, S. E., & Holland, K. J. (2013). Condom negotiation strategies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ondom use. *Journal of Sex Research, 50*(1), 48-59.

Gentzler, A. L., Contreras-Grau, J. M., Kerns, K. A., & Weimer, B. L. (2005). Parent-child emotional communication and children's coping in middle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4*(4), 591-612.

Goodman, L. C., Hamilton, L., Koerten, H. R., Mattei, G. M., Froemming, M. W., & Dubow, E. F. (2019). Childhood Victimization, Cognitive Schemas, and Unwanted Consensual Sex Among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exual Health, 31*(2), 142-153.

Guinn, A. S., Ports, K. A., Ford, D. C., Breiding, M., & Merrick, M. T. (2019). Associations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cquired brain injury, including traumatic brain injuries, among adults: 2014 BRFSS North Carolina. *Injury prevention, 25*(6), 514-520.

Hahn, A. M., Simons, R. M., & Simons, J. S. (2016). Childhood maltreatment and sexual risk taking: the mediating role of alexithymia.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5*(1), 53-62.

Harris, A. E., & Curtin, L. (2002). Parental perceptions,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depressive symptoms in young adul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405-416.

Hayes, A. F.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이형권 역). 신영사. (원저는 2013년 출판).

Hayes, S. C., & Strosahl, K. D. (2015). **수용전념치료: 실무 지침서[*A Practical Guide to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손정락 이금단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4 출판).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Herman, J. L. (2022). **트라우마: 가정 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최현정 역). 사람의 집. (원전은 1997년 출판).

Honkalampi, K., Flink, N., Lehto, S. M., Ruusunen, A., Koivumaa-Honkanen, H., Valkonen-Korhonen, M., & Viinamäki, H. (2020).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lexithymia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74*(1), 45-50.

Infurna, M. R., Reichl, C., Parzer, P., Schimmenti, A., Bifulco, A., & Kaess,

M. (2016).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specific childhood experiences of abuse and neglect: A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90*, 47-55.

Ivanova, I. V., & Watson, J. C. (2010).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on and ambivalence over express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Baltic Journal of Psychology, 11*(1,2), 62-72.

Janovsky, T., Rock, A. J., Thorsteinsson, E. B., Clark, G. I., & Murray, C. V.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interpersonal problem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7*(3), 408-447.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Kite, M. E., Whitley Jr, B. E., & Wagner, L. S. (2022). *Psychology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Routledge.

Kline, R. B. (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4년 출판).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M.,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 Neglect, 27*(2), 199-213.

Leclerc, B., Bergeron, S., Brassard, A., Bélanger, C., Steben, M., & Lambert, B. (2015). Attachment, sexual assertiveness, and sexual outcomes in women with provoked vestibulodynia and their partners: A mediation model.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4*, 1561-1572.

Loshek, E., & Terrell, H. K. (2015). The development of the sexual assertiveness questionnaire (SAQ): A comprehensive measure of sexual assertiveness for women. *Journal of Sex Research, 52*(9), 1017-1027.

McKay, M., Greenberg, M. J., & Fanning, P. (2022). **우울과 수치심의 수용전념치료[*The ACT Workbook for Depression and Shame*]**. (송승훈, 한송이, 진시영 공역). 하나의학사. (원전은 2020에 출판).

Mongrain, M., & Vette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545-555.

Morokoff, P. J., Redding, C. A., Harlow, L. L., Cho, S., Rossi, J. S., Meier, K. S., ... Brown-Peterside, B. (2009). Associations of sex-ual victimization, depression, and sexual assertiveness with unpro-tected sex: A test of the multi-faceted model of HIV risk across gender. *Journal of Applied Biobehavioral Research, 14*(1), 30-54.

Noar, S. M., Carlyle, K., & Cole, C. (2006). Why communication is crucial: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r sexual communication and condom use.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4), 365-390.

Nolin, P., & Ethier, L. (2007). Using neuropsychological profiles to classify neglected children with or without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31*(6), 631-643.

Orchowski, L. M., & Gidycz, C. (2018). *Sexual assault risk reduction and resistance: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cademic Press.

Patricia, J. M., Kathryn, Q., Lisa, L. H., Laura, W., Diane, M. G., Pamela, R. G., & Gary, J. B.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Pilkington, P. D., Bishop, A., & Younan, R. (2021).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Adulthood: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8*(3), 569-584.

Poole, J. C., Dobson, K. S., & Pusch, D. (2017). Childhood adversity and adult depression: The protective role of psychological resilience. *Child Abuse & Neglect, 64*, 89-100.

Poole, J. C., Dobson, K. S., & Pusch, D. (2018). Do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predict adult interpersonal difficulties? The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Child Abuse & Neglect, 80*, 123-133.

Ports, K. A., Ford, D. C., & Merrick, M. T. (2016).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sexual victimization in adulthood. *Child abuse & neglect, 51*, 313-322.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Pugh, B., & Becker, P. (2018). Exploring definitions and prevalence of verbal sexual coercion and its relationship to consent to unwanted sex: Implications for affirmative consent standards on college campuses. *Behavioral sciences, 8*(8), 69.

Rezaei, M., & Ghazanfari, F. (2016). The role of childhood trauma, early maladaptive schemas, emotional schemas and experimental avoidance on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sychiatry research,*

246, 407-414.

Roemmele, M., & Messman-Moore, T. L. (2011). Child abuse,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risky sexual behavior in college wome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0*(3), 264-283.

Sancar, B., & Aktas, D.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s of alexithymia and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Pakistan Journal of Medical Sciences, 35*(2), 489-494.

Sasaki, N., Ikeda, M., & Nishi, D. (2022). Long-term influence of unintended pregnancy on psychological distress: a large sample ret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25*(6), 1119-1127.

Schoemann, A. M., Boulton, A. J., & Short, S. D. (2017). Determining power and sample size for simple and complex mediation model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8*(4), 379-386.

Shorey, R. C., Elmquist, J., Anderson, S., & Stuart, G. L.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depression, and generalized anxiety among adults seeking residential treatment for substance use disorders.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47*(3), 230-238.

Tezel, F. K., Kişlak, Ş. T., & Boysan, M. (2015). Relationships between childhood traumatic experiences,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interpersonal styles. *Noro psikiyatri arsivi, 52*(3), 226-232.

Thomson, R. A., Overall, N. C., Cameron, L. D., & Low, R. S. T. (2018). Perceived regard, expressive suppression during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2*(6), 722-732.

Van der Kolk, B. (2020). **몸은 기억한다: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The body*

keeps the score: Mind, brain and body in the transformation of trauma]. (제효영 역). 을유문화사. (원전은 2014년 출판).

VanderEnde, K., Chiang, L., Mercy, J., Shawa, M., Hamela, J., Maksud, N., ... & Hillis, S. (2018).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HIV sexual risk-taking behaviors among young adults in Malawi.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3*(11), 1710-1730.

Walker, D. P., & Messman-Moore, T. L. (2011). Number of Sexual Partners and Sexual Assertiveness Predict Sexual Victimization: Do More Partners Equal More Risk?. *Violence and Victims, 26*(6), 774-787.

Whiting, W., Pharr, J. R., Buttner, M. P., & Lough, N. L. (2019). Behavioral interventions to increase condom use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A systematic review. *Health Education & Behavior, 46* (5), 877-888.

Wolfradt, U., Hempel, S., & Miles, J. N. (2003). Perceived parenting styles, depersonalisation, anxiety and coping behaviour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3), 521-532.

Young, J. E. (1998).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New York: Cognitive Therapy Center.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Young, J. E., Weinberger, A. D., & Beck, A. T. (2001).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In D. H. Barlow (Ed.), Clinical handbook of psychological disorders: A step-by-step treatment manual (pp. 264-308). The Guilford Press.

Zamboni, B. D., Crawford, I., & Williams, P. G. (2000). Examining

communication and assertiveness as predictors of condom use: Implications for HIV prevention. *AIDS Education and Prevention, 12*(6), 492-504.

Zhang, H., Xie, L., Lo, S. S. T., Fan, S., & Yip, P. (2022). Female sexual assertiveness and sexual satisfaction among Chinese couples in Hong Kong: a dyadic approach. *The Journal of Sex Research, 59*(2), 203-211.

ABSTRACT

The Effect of Childhood Trauma 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Assertivenes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ungmi Ha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tating effects of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purpos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Sexual Assertiveness Scale, 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228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hood trauma,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nd sexual assertivene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other three variables.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sexual assertiveness.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sexual assertiveness. Fourth, the sequential meditating effects of of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sexual assertivenes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childhood trauma, sexual assertiveness,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부 록

부 록 1 인구통계학적 정보 질문지

부 록 2 성적 자기주장 척도
(Sexual Assertiveness Scale; SAS)

부 록 3 아동기 외상 설문지 단축형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

부 록 4 도식 질문지 단축형
(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YSQ-SF)

부 록 5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K)

부 록 1. 인구통계학적 정보 질문지

1. 귀하의 현재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세)

2. 귀하께서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녀공학 대학교 ② 여자 대학교

3. 귀하의 현재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귀하의 이성교제 경험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부 록 2. 성적 자기주장 척도(Sexual Assertiveness Scale; SAS)

※ 다음은 이성과의 성 접촉 시 반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가장 최근, 또는 현재의 이성교제시의 행동과 유사한 것에 표시하여 주세요.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대처할 방식들에 표시하여 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내가 “No” 라고 말했더라도 파트너가 강요하면 나는 키스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파트너가 가슴을 만지려 할 때에 내가 싫으면 거절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파트너가 성기를 만지려 할 때에 내가 싫으면 거절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싫더라도 파트너의 요구에 따라 애무해준다(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싫더라도 파트너가 원하면 성교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파트너가 요구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성교를 거절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와 파트너가 성교를 원하면 콘돔 없이 성교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성교 할 때 콘돔을 사용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성교하기 싫어도 파트너가 요구하면 콘돔없이 성교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콘돔을 사용하고 싶어도 파트너가 콘돔을 싫어하면 그냥 성교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파트너가 콘돔을 싫어해도 내가 원하면 콘돔을 사용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파트너가 콘돔사용을 거절하면 나는 성교 안한다(안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부 록 3. 아동기 외상 설문지 단축형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

※ 다음은 귀하가 만 18세 이전에 당신의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 표 하세요.

번호	문항	전혀 없음	드물게 있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1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예: 멍청이, 뚱땡이)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4	가족 중에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한 말 등을 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세게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세게 맞아 병원에 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회초리 이외의 물건(허리띠, 몽둥이)으로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너무 많이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12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13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가깝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14	우리 가족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15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려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16	나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7	가족들에게 나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18	부모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①	②	③	④
19	내가 씻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어도 내버려 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0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부 록 4. 도식 질문지 단축형
(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YSQ-SF)

※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는 경우, 옳다고 생각되는 문장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번호	문항	완전히 다름	대부분 다름	조금 일치	상당히 일치	대부분 일치	완전히 일치
1	나를 보살펴 주거나, 고민을 나누거나, 내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이제껏 내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진정으로 내 말을 듣고 심정을 이해해주거나 또는 내 속마음이나 감정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 내게 올바른 충고나 방향을 제시해줄 만한 든든한 사람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내게는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잃게 될까봐 마음을 졸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거나 나를 버릴 것만 같은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내가 관심을 쏟는 사람이 내게서 멀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면 절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때로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걱정을 떨치지 못해 아예 내가 그들을 멀리해 버리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사람들이 날 이용할 거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계를 풀 수 없다고 느낀다. 그렇게 안하면 그들이 나를 의도적으로 해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누군가 나를 배신하는 건 시간문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나는 다른 사람의 진정한 동기나 속셈에 대해 의구심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나는 대개 사람들의 숨은 동기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나는 어느 곳에서든 잘 어울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뭔가가 어긋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고독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나는 무리에 끼지 못하고 바깥에서 맴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내 결점을 알고 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된다면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나는 남들에게 사랑받거나 관심받거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단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기본적인 결함 때문에 수용받기 힘든 마당에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부 록 5.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Korean version: AEQ-K)

※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평소 가질 수 있는 생각과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를 받게 될까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종종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종종 내가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왠지 망설여진다.	①	②	③	④	⑤
8	비록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온당한 일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의 부정적인 느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감정들을 감춰두려 하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1	정서적 반응을 좀 더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을 드러내고 싶지만, 상처받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3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애정을 좀 더 겉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화를 참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16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17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 느끼는 바를 말하고 싶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조차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이성친구가 알았으면 하면서도, 이성친구에 대한 질투심을 억누르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화를 낼까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때때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싶더라도 나는 언제나 기분을 다스리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